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 10. 28

CONTENTS

〈 요약 〉

01. 차 없는 거리의 효과와 논란 그리고 사례
02. 서산시 차 없는 거리 운영 현황
03. 차 없는 거리 확대에 대한 상인의식
04. 서산 차 없는 거리 확대 방향
05. 결론 및 정책제안

서산시 도심 상권 활성화 기초연구; 오픈스트리트 조성(차 없는 거리 확대)을 중심으로

임준홍 연구위원(jhm@cni.re.kr)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이충훈 선임연구위원(ichlee@cni.re.kr) 충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사공정희 책임연구위원(sun-road@cni.re.kr)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본 연구는 현재 서산시 번영1로 일부구간을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 없는 거리 확대(오픈스트리트 조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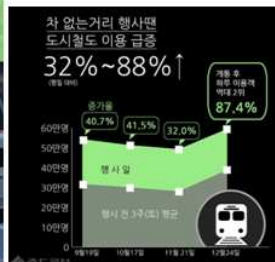
요 약

-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리는 40여 개국, 2,100여개 도시에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한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아니라 ‘차 없는 도시’, ‘오픈스트리트(Open Streets)’ 개념에서 접근하여, 이는 하나의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시의 상인 중심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의 요구와 행정적 관심은 차 없는 거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서산시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선진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차없는 거리가 확대 된 ‘오픈스트리트(Open Streets)’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서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의 조성 즉, ‘오픈스트리트(Open Streets)’을 위해서는 상인과 시민의 협력은 물론 행정의 체계적인 공간과 대응이 요구된다.
 - 우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 통행량 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교통체계의 개선, 주차장 확보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오픈스트리트 조성이 도심상권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상권에 대한 분석과 빈점포 활용 등 도심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행정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차 없는 거리의 효과와 논란 그리고 사례 ◀

1. 차 없는 거리의 효과와 논란

- ◎ 차 없는 거리 조성(행사)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시민들을 행사장소로 끌어오는 힘은 크다. 하지만 이곳에 온 사람들이 인접한 상점과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매출 증가가 있다하여도, 특정 점포나 업종에 한정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 ◎ 최근 이러한 갈등을 보여준 사례가 대전시의 “중양로 차 없는 거리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 지하철 이용객 등 유동인구증가, 도심 방문자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도 많지만 교통정체, 매출액 증가에 준 영향이 미비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논란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2. 차 없는 거리 운영 선진사례와 시사점

1) 차 없는 거리 운영 선진사례 ; Car Free Day에서 Car Free City

- ◎ '차 없는 거리(날)' 행사는 1년 중 하루 만이라도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 개국 210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¹⁾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시도와 성공적 사례는 국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차 없는 거리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²⁾
- ◎ 뉴욕시의 서머스트리트 (Summer Street)의 차 없는 날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8월 3번째 토요일 07:00~13:00 동안 센트럴파크에서 브루클린 다리에 이르는 총 11.1km 구간에서 개최된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이동수단 제공과 더불어 주민의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뉴욕시 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 가로디자인 매뉴얼 개발, 2010년 인근공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점차 확대되었다.
 -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무료 자전거수리와 태극권 교실, 두 줄 넘기 공연, 살사레슨, 암벽등반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도 한다.
 - 특히, 행사는 인근지역 공공영역을 활용하여 장소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1) 서산뉴스(www.seosannews.com) 2015년 9월 18일자 인용)

2) 민현석, 여혜진, 2012 「서울시 차 없는 거리 개선 및 확대방안 연구 - 도심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과 traffic.seoul.go.kr/archives/10729 인용.

- ◎ 런던시의 노우드 하이 스트리트(Norwood High Street, 전체 길이 600m, 너비 10m)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9월 하루 동안 14:00~17:00에 모든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대중교통과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노우드 하이 스트리트의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역시 자동차 대신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승용차에게 빼앗겼던 가로를 되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사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여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행사 날에는 도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잔디를 깔아 임시음악당을 설치, 라이브 음악과 색소폰 오페라 공연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놀이터와 각종 놀이프로그램, 보석과 의류에서 닭고기, 케이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마을장터가 운영된다.
 - 특히, 구역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웰링스턴에서 클라런스까지의 건강을, 클라런스에서 리치몬드까지는 문화를, 그 외 리치몬드에서 탈보까지와 탈보에서 리드아웃까지는 자전거 및 스케이드보드를 주제로 한 친환경적이면서 재미를 더한 공간이 조성된다.



- ◎ 파리의 플라주(Paris-Plages)는 파리중심부의 세느강을 따라 2002년부터 매월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시행되는 차없는 날 행사로, 생활과 경제사정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파리 시민들과 휴가철에 파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자 시행되었다.
 - 파리는 이 행사를 위해 세느강의 차도를 통제하여 보행자 도로로 만든 후 1,000 여 톤의 모래로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여 해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라벨레트 운하를 따라 약 0.7km구간에서 다양한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특히 가족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도서관과 음악회, 연극은 물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도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탐구 아틀리에, 조형미술실, 만화상영, 회전목마 설치 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파리의 주요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파리 시내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 ◎ 이상의 사례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많은 도시들에서는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다양한 이벤트와 활력 있는 도시만들기 차원에서 단순한 ‘차 없는 거리(행사)’를 넘어 “차없는 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성공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다음의 그림들은 단순한 차 없는 날 행사에서 면적 확대를 통해 차 없는 도시까지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Car Free Day



<https://greenrunners.wikispaces.com/Environmental+Days+of+the+World?responseToken=fc638e321895b1af6243861dc0479b34>



<http://kyiv.cool/car-free-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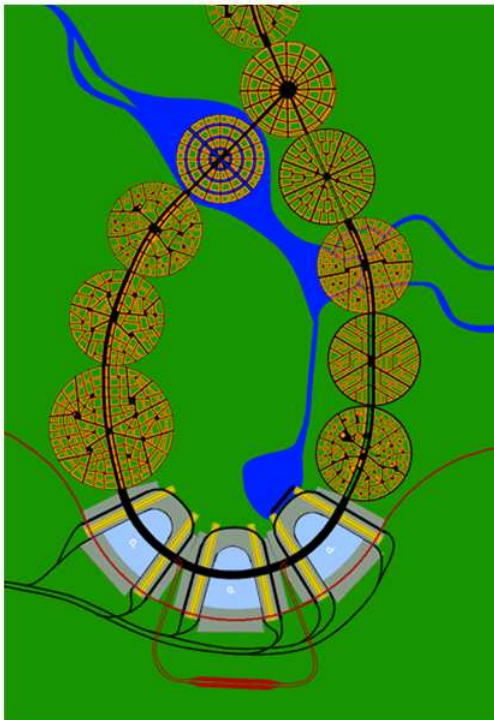


<http://www.impretaunika.it/2014/09/earth-day-italia-adotta-cefalu-nel-suo-car-free-day/>



<https://kr.pinterest.com/pin/160300067956808840/>

Car Free City



<http://www.carfree.com/topology.html>



What's in a sustainable community?

It's impossible to have everything, but through his research, Crawford has compiled a list of the services a community must have in order for its citizens to be comfortable going to their cars and taking transit to work and other necessary destinations. This list is a part of his blueprint for neighborhoods in a car-free city.

A working sustainable community must have, within walking distance:

1. Bank, or at least an automated banking machine (ATM)
2. Bike repair shop
3. Fast-food restaurant
4. Food store
5. Gas station
6. Grocery store/supermarket
7. Health care center
8. Hotel or motel
9. Ice cream parlor
10. Laundry and dry-cleaning
11. Library
12. Mailbox
13. Park
14. Pharmacy
15. Restaurant
16. School
17. Shopping center
18. Sports center
19. Theater
20. Transit station



http://sylvianickerson.ca/2009/03/car_free_city_this_magazine.html

2) 시사점

-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행사나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 [공간적인 측면] 단순한 차 없는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차 없는 행사는 해당 도로와 함께 인접지역 특히, 주변의 공공장소를 적극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 [내용적인 측면] 단순한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도시 및 장소적 특색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과정적·참여적 측면] 초기에는 행정 주도로 차 없는 행사들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인식의 전환과 공감대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행사 참여와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산시 차 없는 거리 운영 현황 ◀

02

1. 서산시 도심 현황³⁾

- 서산시 도심은 서산 시내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근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70여년 이상 서산의 명동으로 불리며 성인의류·유아복·속옷 브랜드, 금융 등 중심상권으로 성장·유지하였지만, 최근에는 시내 외곽지역 신상권의 형성으로 도심 침체기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된다.
- 도심에는 전통시장인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변화로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상점가가 주요 도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 변화1로 : 빠리안경~동광인쇄(100여 점포)
- 변화2로 : 퀸스뉴노래~서부파출소(80여 점포)
- 중 양 로 : 1호광장~삼일상가(100여 점포)

- 이러한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6년에는 거리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정비사업 추진(2014~2016)
 - 중심시가지 도로정비(전기통신주 지중화 등 포함) : 116억원
 - 번영1로 공영주차장 설치 : 18억원
 - 공중화장실 설치 : 3억원
- 거리축제 개최(2016)
 - 축 제 명 : 제1회 번영로 봄맞이 축제(상인회 자체기획)
 - 추진기간 : 2016. 5. 4(수) ~ 5. 8(5일간) ※행사당시 사진 : 붙임1
 - 효 과 : 행사기간 점포별 매출 향상(3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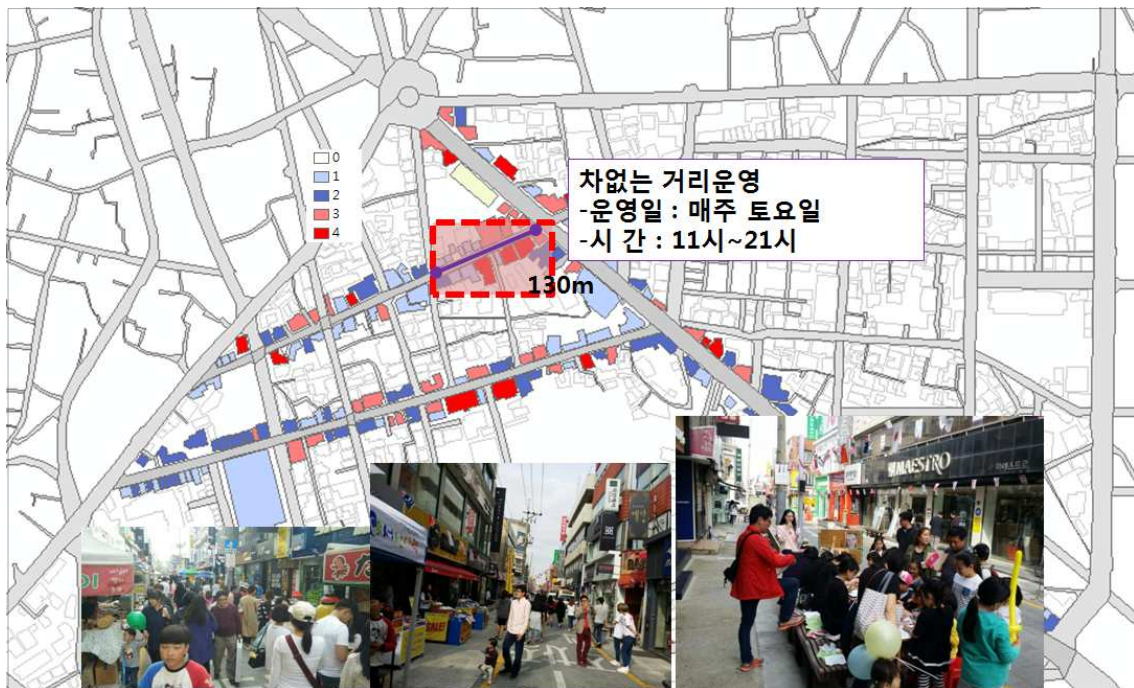
3) 서산시 내부자료(2016.08)

2. 서산시 차 없는 거리 운영 현황⁴⁾

- 서산시는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土曜車無 거리“(토요일은 차 없는 거리)’라는 명칭으로, “토요일, 변화로에 오면 재미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리 테마를 바탕으로 시가 주최하고 서산기후환경네트워크,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⁵⁾

- 1차 구간 : 130m(변화로 일부, 스케쳐스~줄리엣)
- 2차 구간 : 1차구간 성과 검토후 확대(1로 잔여구간, 2로)
- 중 양 로 : 지원도로(1호광장~삼일상가 사거리)

- 서산시는 현재 상인이 중심이 되어 변화1로의 일부구간(130m정도)에 대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2015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자료 : 연구자 작성(2016. 9)

4) 서산시 대부자료(2016.08)

5) 서산기후·환경네트워크(사무국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는 ‘2015년 승용차 없는 주간(9.16~9.22)’을 맞아 세계 승용차 없는 날(9.22)을 기념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질개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등을 느끼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으로 1일 차 없는 거리 한마당 행사를 18일 동문2동 변화1로 구 중앙통 일원에서 전개했다.서산뉴스(<http://www.seosannews.com>) 2015년 9월 18일자 참조)

- 차없는 거리와 조성과 더불어 “테마가 있는 거리”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판매 행사 등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무료 봉사단체등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이벤트 : 캐릭터(초상화) 그려주기, 키다리안내, 보디페인팅, 네일아트, 가훈 써주기, 동물풍선 만들기, 다문화가정 음식자랑 등 - 특별이벤트 : 음악동아리 공연, 난타 공연, 특수악기 공연 등 ※타 지역 자치단체 및 다른나라 운영사례 참고(벤치마킹 등) →월별, 계절별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이벤트 개발 ○ 할인판매 행사(박리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여 점 : “매주 토요일은 정기세일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 섭 외 점 : 플리마켓(벼룩시장) 형태로 운영, 음식 및 일반상품 ○ 상점주 협조사항(사전 동의서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의 바가지요금, 불친절, 비위생 행위등 금지 - 기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협의된 사항 적극 협조·이행
<p>③ 홍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수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페이스북, 카스토리) : 점주&가족, 서산시 관련부서, 직원 - 일반홍보 : 서산시보, 홍보물 부착(출입문), 홍보지 배포 - 영상홍보 : 언론인터뷰(방송사), 대형전광판(호수공원) - 플래카드 : 실시지역(입출구, 중간), 관내 주요게시판(30개소)

- 중장기적으로는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 민자 등 예산사업과의 연계, 비예산사업의 확산,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사업(국비 및 지방비, 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사업(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 기타 국가공모사업) -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특색있는 간판정비 등) ○ 비 예산사업(구간내 빈점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구간내 빈 점포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 - 점 포 수 : 4개소(기존 의복판매점) - 활용방안 : 실업청년 창업창구(특색에 맞는 품목 선택) - 협조사항 : 건물주와 임대 협의시 협조(상가번영회&서산시)

- ◎ 본 분석자료는 지난 여름에 이루어진 서산시의 차없는 거리 행사에 대한 상인의식분석을 위해 조사된 자료이며, 분석을 위해 차 없는 행사구간에 참여한 상인과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인접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상인의식조사 : 2016년 8월 실시)

1.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상인의식 : 행사에 참여한 상인

- ◎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 23명 중 7명만 좋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행사 내용에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 ◎ 행사의 주요한 한 요소인 걷기 좋은 환경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총 14명이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소에 비해 거리 활력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12명이었으며, 행사여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 이에 반해, 행사내용에 대한 평가와 행사종목에 대한 양적 평가는 좋지 않아, 보다 다양하고, 참여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사내용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 행사에 있어 가장 불편한 사항은 영업차량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행사에 도움이 되는 행사 등 주변안내도, 조명등 설치, 거리공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표 1〉 차 없는 행사에 대한 상인평가: 행사 참여 상인들의 생각

건기 좋은 환경	응답자(인)	행사내용	응답자(인)
매우 그렇다	0	매우 좋았다	
그렇다	14	좋았다	7
보통이다	8	보통이다	6
그렇지 않았다	1	좋지 않았다	10
전혀 그렇지 않았다	0	매우 좋지않았다	0
거리 활력 증대	응답자(인)	가장 불편한 사항	응답자(인)
매우 그렇다	2	영업차량 이용 불편	10
그렇다	10	교통체증,소음문제	1
보통이다	6	주차공간부족 문제	3
그렇지 않았다	5	시설물 위치 및 부족	3
전혀 그렇지 않았다	0	쓰레기 투기, 처리	1
차없는 거리 행사 여건	응답자(인)	기타응답자(인)	1
매우 그렇다	0	그늘막이 없다	1
그렇다	12	무응답	3
보통이다	9	가장 필요한 시설	응답자(인)
그렇지 않았다	1	벤치	2
전혀 그렇지 않았다	0	주변안내도	5
행사내용	응답자(인)	조명등	4
매우 많았다	0	쓰레기통	2
많았다	2	주차장	3
보통이다	8	소공원	1
부족하였다	12	거리공연장	4
매우 부족하였다	2	가로판매대	1
		기타	1

◎ 보다 성공적인 차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거리공연과 거리축제의 개발로 뽑았으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속적인 행사 개최와 행정지원, 불법주차단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현재, 변화1로의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는 행사를 변화2로, 중앙로 등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하여야 한다가 10명으로 많았다.

◎ 차 없는 행사가 실제 고객증가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상인들의 교류증가 등에는 다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차 없는 행사에 대한 상인평가: 행사 참여 상인들의 생각(계속)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응답자 (인)	행사효과(상인교류, 협력)응답자 (인)	응답자 (인)	고객증감	응답자 (인)
거리공연	11	증가	7	증가	5
거리축제	6	예전과 비슷	12	변화없음	3
노점 장터	3	감소	1	감소	4
기타	2	무응답	3	매출증감	응답자 (인)
무응답	1	행사확대(일자)	응답자 (인)	증가	5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일	응답자 (인)	하지말아야 함응답자(인)	5	변화없음	3
불법주차단속	5	토요일만	11	감소	3
노점상 유치	2	평일까지 확대	3		
지속적 행사 개최	9	무응답	4		
지속적 행정지원	3	행사확대(변화2로, 중앙로)	응답자 (인)		
무응답	4	확대하여야 함	10		
행사때 고객 많은 시간대	응답자 (인)	확대하지 말아야	4		
오후2시-4시	6	무응답	9		
오후4시-6시	10	점포 주고객층	응답자 (인)		
오후6시-8시	3	20대	4		
무응답	4	30대	9		
평소 토요일 고객 많은 시간대	응답자 (인)	40대응답자(인)	2		
오후2시-4시	2	50대	4		
오후4시-6시	7	(비어 있음)	4		
오후6시-8시	11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	응답자 (인)		
무응답	3	오전	1		
		오후2시-4시	8		
		오후4시-6시	6		
		오후6시-8시	4		
		무응답	4		

2. 차없는 거리에 대한 상인의식 :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변 상가 상인

● 변화1로와 인접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포 상인들은 변화1로의 차 없는 행사에 대해 비교적 많은 상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방문 또는 견학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 주변 상인들은 차없는 행사에 대해 응답자의 44명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7명이었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2명으로, 그 필요성을 강하

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사에 있어서는 토요일에만 행사를 원하는 상인들이 많았으며, 행사시 불법주차단속도 병행하여야 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사 개최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2〉 차 없는 행사에 대한 상인평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접 상가 상인들의 생각(계속)

번화1로 차없는 행사 인지	응답자 (인)	차없는 행사 시 해야할 일	응답자 (인)	점포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	응답자 (인)
알고 있다	33	가로시설물 유지관리	4	12시-2시	7
모른다	11	불법주차단속	15	2시-4시	13
번화1로 차없는 행사 방문	응답자 (인)	노점상 유치	5	4시-6시	18
있다	21	다양하고 지속적 행사 개최	13	6시-8시	4
없다	23	지속적 행사지원	2	무응답	2
차없는 행사 선호 시간	응답자 (인)	거리 운영 시간(일자)대 조정	2	점포업종	응답자 (인)
오전	3	무응답	3	여성의류 판매	17
12시-2시	6	차없는 행사 개최 필요정도	응답자 (인)	남성의류 판매	5
2시-4시	10	꼭 필요하다	7	아동의류 판매	4
4시-6시	15	필요하다	10	화장품, 액세서리 등 판매	5
6시-8시	8	보통이다	14	식당, 분식, 레스토랑 등	2
8시-10시	1	필요없다	6	호프, 소주 등 술판매점	1
무응답	1	전혀 필요없다	6	기타	9
차없는 행사 선호 일	응답자 (인)	무응답	1	무응답	1
토요일만	34	점포의 주 고객층	응답자 (인)		
상시(평일까지 확대)	9	10대	1		
무응답	1	20대	6		
차없는 행사 필요 프로그램	빈도	30대	9		
거리공연	10	40대	15		
거리 축제	21	50대	9		
전시회	1	60대	2		
노점 장터	9	무응답	2		
문화자원 발굴 프로그램	1				
무응답	2				

1. 차없는 거리 조성 기본방향 ; 서산 오픈스트리트(Open Streets)

- ◎ 서산시의 차 없는 거리 조성(행사)는 단순한 차 없는 거리 조성 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오픈스트리트 개념을 도입하여 조성하고, 서산시의 하나의 도시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구된다.
 - 이는 선진사례에서도 단순한 특정 거리의 일정 구간의 차없는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특성과 시설을 활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서산시의 차없는 거리는 일부구간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오픈스트리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오픈 스트리트(Open Streets) : 차없는 거리의 선진적 확대 개념으로, 차없는 거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연계한 기법.



이미지: <http://burtslogoapparel.com/taking-open-streets-fort-collins-join-us-july-20-10-3-pm/>

- 오픈스트리트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도하는 다양한 목적과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때 그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Open Streets 역할



<https://source.wustl.edu/2012/01/st-louis-open-streets-set-to-be-model-for-national-movement/>



Open Streets 역할 강화



<http://openstreetsgreenbay.com/>

- 뿐만 아니라 오픈스트리트를 통해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은 홍보효과를 더욱 높이고, 행사 주최인 자치단체와 민간은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생적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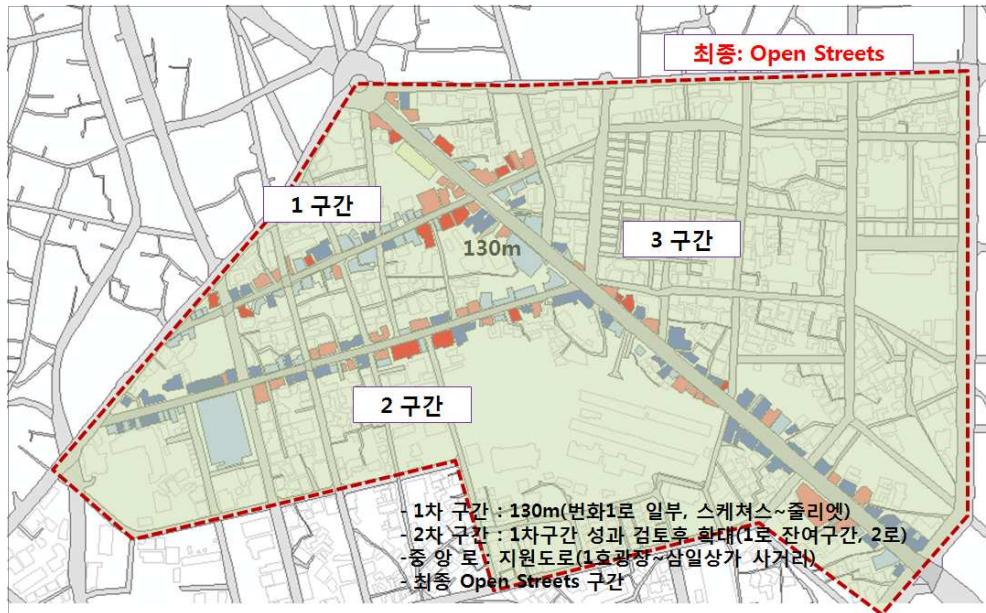


- 서산시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으므로, 이들 기업과 연계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차없는 거리 확대 방향

1) 오픈스트리트 조성 구간 설정(공간적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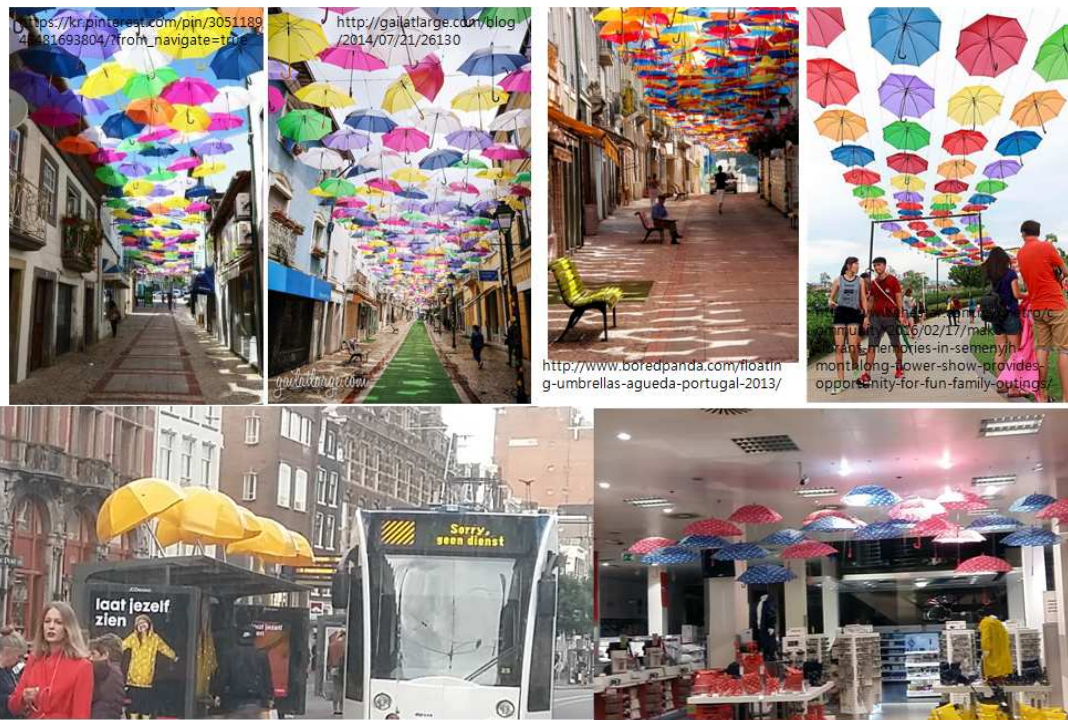
- 현재 운영 중인 1구간 변화1로의 확장을 시작으로, 2구간, 3구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심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면적을 확장하는 Open Street 개념의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1차 구간 : 130m(변화1로 일부, 스케쳐스~줄리엣)
 - 2차 구간 : 1차구간 성과 검토후 확대(1로 잔여구간, 2로)
 - 중 양 로 : 지원도로(1호광장~삼일상가 사거리)
 - 최종구간 : Open Streets(면적 확장) * 다음 그림 참조



* 오픈스트리트 구역 설정은 서산시 관계자와 상인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며, 향후에는 교통량 현황 및 주차장 확보 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종 설정 필요.

2) 서산시 만의 브랜드(이미지) 구축 방향(예시)

- ◎ 차없는 거리의 성공적 토대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이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 사진과 같이 다양한 아이템을 기초로 장소성 확보가 중요하다.



위 사진

페이스북 아래 사진 암스테르담 연구자 촬영

ERROR: syntaxerror
OFFENDING COMMAND: --nostringval--

STACK:

160
4722
5